



◇서용스님과 진제스님이 법당으로 향하고 있다.



◇무차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부처님을 향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법거랑에 앞서 진제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는 임희동 변호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19일 백양사 대응전

“참사람 자비정신으로 평화의 역사 창조”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 법어 (요지)

(주장자(拄杖子)를 들어 법상(法床)을 세 번 치고 살하기를.)

오늘날 현대문명은 인간주의(人間主義)로 세계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주의는 한없는 욕망으로 인한 전쟁과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 정신문화는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한 참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오직 참사람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세계평화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문명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의 문명이라고 하나, 그 이면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욕망적 인간주의로 전락하여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조사선(禪師)은 자아를 초월한 그 본성 자리인 인간의 진실상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냈으니, 이것을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사람은 본래 자유자재하여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참사람은 대자연과도 불이·일체(不二一體)의 생명이나 대자연의 포용·애호(包容愛護)하는 것입니다.

참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면서 자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인류 평화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선의 참사람 법문을 아나할 수 없었습니다.

위산(滙山)스님이 도오(道吾)스님에게 물되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니, 도오스님이 이르되 “간병(看病)하고 왔습니다” 했어요. 위산스님이 다시 이르되 “몇 사람이나 병이 들었는가” 하니, 도오스님이 답하길 “병든 자도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산스님이 이르되 “병들지 아니한 자는 이 도오종지(道吾宗誓) 두타(頭陀)가 아닌가” 하니, 도오스님이 이르되 “병과 병아니 다 타사(他事)에 간섭하지 아니 하니, 속히 이르고 속히 이르시오” 라고 하니 위산스님이 이르되 “이들래야 교섭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천동각사서는 이렇게 노래 했습니다.

(天童覺禪師頌)

묘한 약은 어찌 일찍이 입을 통과하는 고? 신(神)같은 의사는 능히 손을 잡지 아니 하니라. 만약 있다고 하면 저것은 본래로 없음이 아니고, 지극히 빈 것이라 하면 저것은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니로다. 말하지 아니하고 남이오, 말하지 아니하고 수(壽)하니라. 온전히 위음왕 부처님 이전을 초월하고 홀로 공경의 이후를 활보(活步)하니라. 평정(平正)을 이룩하여, 하늘이 덮고 땅이 받침이오, 움직여 굴림이여, 까마귀(해) 날고 토끼(달) 달리도다. 이것을 다시 나는 이렇게 부연하고자 합니다.

衆流截斷이라 柳綠花紅하고 明月藏藏하며 獨步青天하도다.

別別 消風禦寒拂乾坤하고 四海茫茫却倒流하도다.

喝 -

(모든 흐름이 끊김이라. 버드나무는 푸르고 꽃은 붉도다. 밝은 달 속에 백로를 감추고 홀로 푸른 하늘을 활보(活步)하도다. 특별히 말하노니 청풍은 능히여여 건곤을 떨치고, 사방 큰 바다는 아득하여 도리어 거꾸로 흐르도다. 아 - 약 -)

법거랑

조계종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의 사회로 법회에 참석했던 사부대중과 서용 스님의 선문답이 이어졌다.

한 비구 수좌가 연단에 올라 서용스님이 위산 스님의 법어를 인용해 법문한 점을 지적하며 “위산 선사가 법어를 하지 않았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사자의 기상을 보이실 것입니까”라며 가르침을 청하자, 서용스님은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친 뒤 “아 약” 하며 일 갈(喝)을 한 뒤 “그 따위 소리 하지마라” 고 호통쳤다. 이에 비구 스님이 오직 개천 안목으로라야만 무차법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서용스님은 “그 망상 피우지 말라” 하자, 비구 스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다.



서용스님 인터뷰

내뿔만 지키는 타락한 인간주의 인류 멸망 초래

참사람 무차대법회가 끝난 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西翁) 스님을 19일 백양사 설선당(說禪堂)에서 친견했다.

—참사람 무차대법회를 열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요.

▲오늘의 세계 역사는 지나친 물질의 식에 집착한 나머지 부정부패와 내뿔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남을 파괴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주의로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참사람은 자유자재하며, 자비심으로 서로를 돕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살려 평화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남북통일과 인류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법회는 원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굳이 ‘무차’ 형식의 법회가 필요한가요.

▲원래 불교는 평등의 정신에 기반하여 가르침을 펴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사람들에게 습(習)이 들어 상대로 안되게 마련이지요. 이를 바로잡아 수행기공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관법(觀法)과 조사선을 비교해 주십시오.

▲위빠사나 수행은 소승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산란한 정신을 안정시켜 정신을 맑게 하는데 효력이 있지만,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 참선이 필요해요. 좀 어렵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동양의 조사선이 효과적입니다.

—조사선이 현대에 와서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인간주의가 오늘날 욕망으로 흘러

정쟁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어요. 물질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모습으로 살 때 욕망에 흐르지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조사선의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전통을 되살려 화합을 통해 역사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남북분쟁은 당사자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노력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불자이든 아닌든 참사람 정신이 역사창조의 근본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버리고 동체대비의 ‘하나’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동안 남북이 분열되어 살아왔는데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서로

통해있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해요.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과 본심으로 돌아가서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98년 제1차 국제무차선대회에 비해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98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했으니, 이제 국내적으로 내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매년 무차선법회를 개최하고 싶지만 사중 살림을 고려해 2년만에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조계종의 수행기공 진작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은.

▲조계종이 조사선의 수행전통을 되살려 자비·화합해 민중에 이바지 하는 종단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는 다르듯이 포기·낙담하지 말고 중지중중대로 정진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법회를 회향하신 소감은.

▲많은 수행자들이 신심을 갖고 참여해,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차대법회 이모저모

“비도 멈춘 큰스님의 법력”

19일 아침까지 내린 계림리성 집중 폭우 때문에 전날 미리 도착한 신도들이 법회를 치를 걱정을 하자 백양사 주지 대정 스님은 “큰스님들의 법력(法力)으로 날씨 문제는 걱정없다”고 했고, 신기하게도 이날 행사 1시간 전부터 비가 그치고 행사가 끝난 뒤 1시간 쯤 지난 5시 30분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고승들이 대법회를 열 때는 천룡과 신장들이 옹호한다는 경전 말씀이 사실인 것 같다”며 한 마디씩, 98년 제1회 무차대회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내심 스님과 신도들의 환희심이 컸다는 후문.

인터넷 실시간 중계 실패

백양사와 불타뉴스, 불교인터넷

TV(BIT)에서는 19일 열린 무차대법회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텍스트와 동영상으로)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 선로 불통으로 중계에 실패했다. 특히 백양사는 인력,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침울한 표정.

월하·승산스님 건강상 불참

담초 참석해 법어를 하기로 했던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과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축사를 하기로 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참석하지 않아 “조계종 어른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는 스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성=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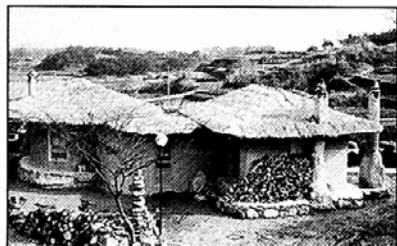
※ 기사 넘쳐 ‘달마 관심론’ ‘스님이야기’ 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상온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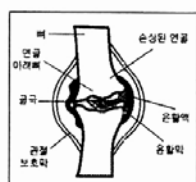
- ① 황토 주택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 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 두 무릎이 쭉서 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팽팽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 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IMF다이어트 인기 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강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용한 ‘코란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회색반발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란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외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란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 거름대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원 거름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거나,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바닥만 들어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상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려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범주스님의 비법으로 만든 약제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제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팅’이라 부르고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대부분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든 치유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